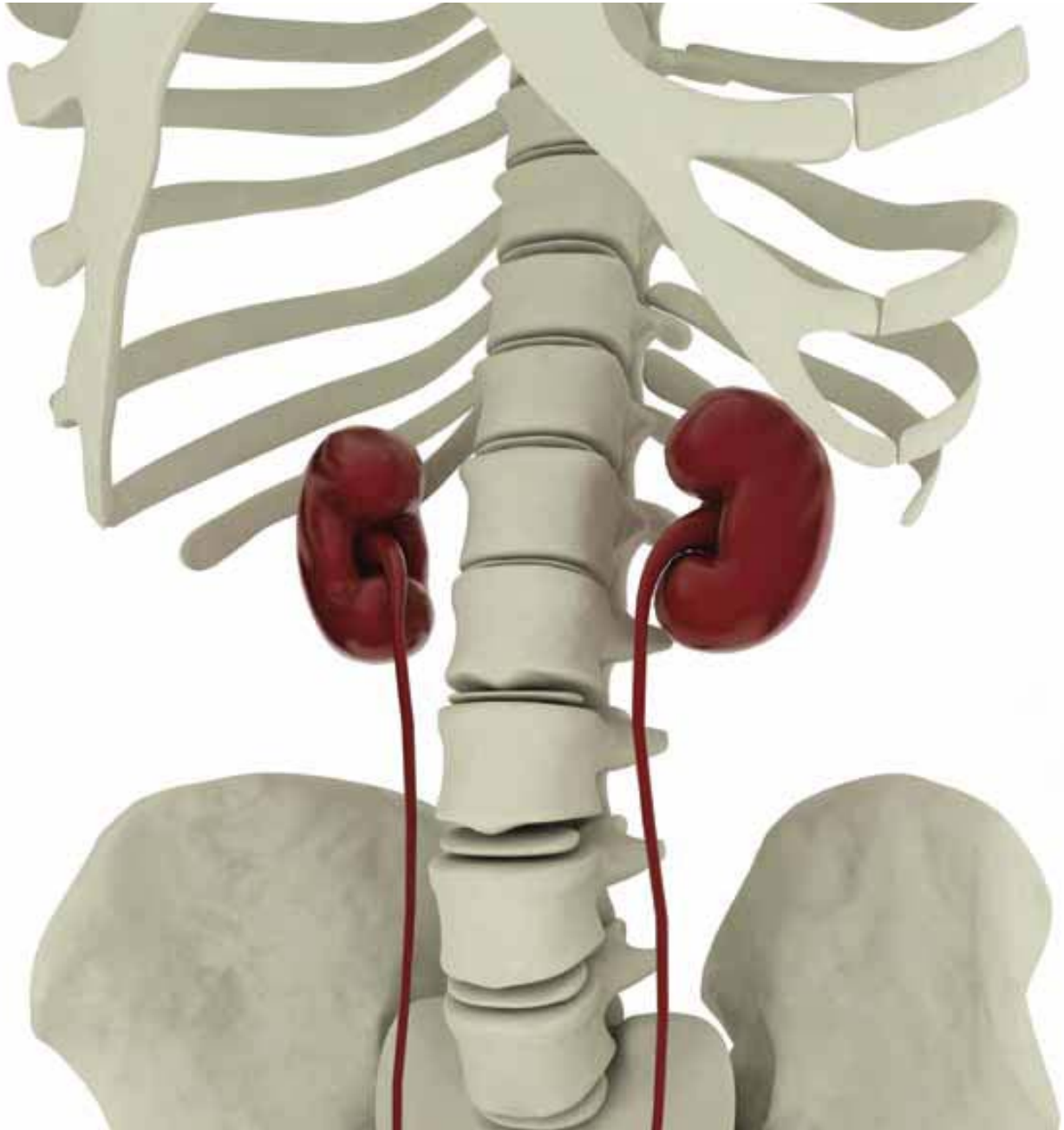


피터 드러커와 **콩팥**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 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여섯 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콩팥은 보통 강낭콩 모양으로 아기 주먹 크기의 장기가 복부의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신장’이라는 한자어와 함께 ‘콩팥’이라는 한글이 함께 쓰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모양이 콩과 팥을 닮아서 그렇게 부르지 않나 싶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사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이다. 즉 잘 구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사용할 것은 흡수하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곳이다.

콩팥은 작지만 인체에서 단위 면적당 혈관의 분포가 가장 많은 기관이다. 체중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혈액의 20%가량을 공급 받는다. 하루로 치면 약 160리터나 된다. 각각의 콩팥에는 약 1백만 개의 콩팥단위(네프론)가 들어 있다. 이런 콩팥단위로 들어간 물질들은 마치 트롬본의 나팔 부분처럼 생긴 사구체를 통과하여 구불구불한 트롬본의 몸체를 지나면서 여과의 과정을 거쳐 화학적인 균형을 잡게 된다. 이러한 콩팥은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 외에도 체액의 전해질 조절, 적혈구 생성, 호르몬 분비와 비타민D 활성화로 칼슘대사를 조절하는 일 등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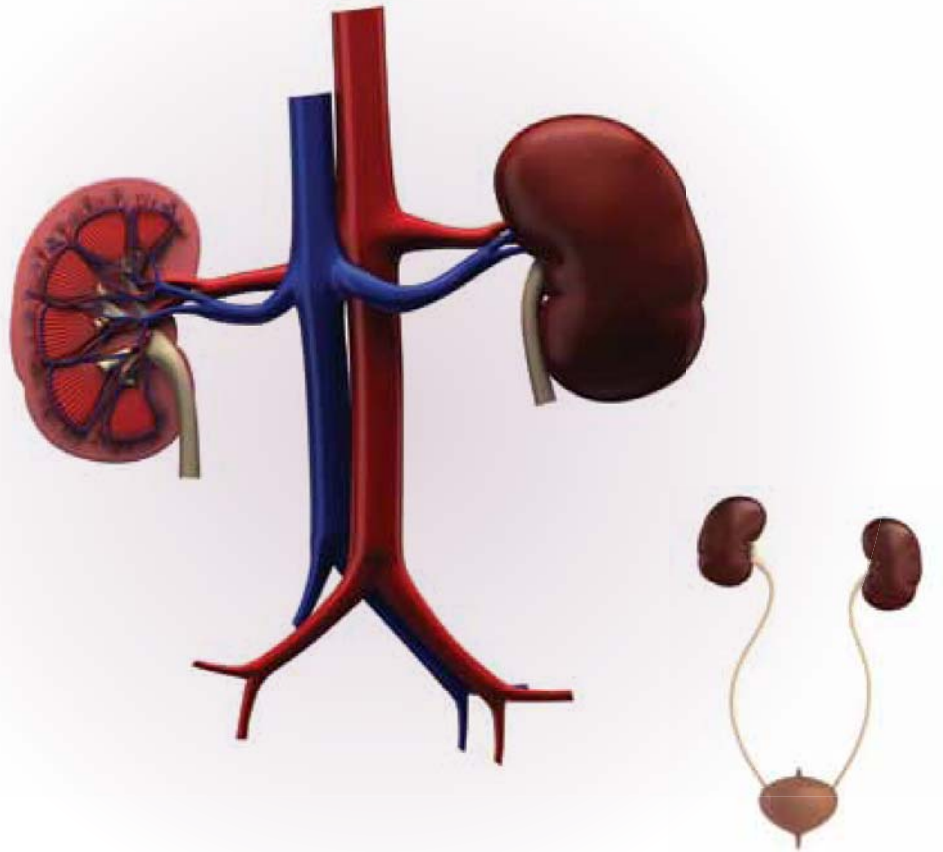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누구보다도 콩팥의 기능을 잘 이해하여 경영학에 절묘하게 적용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혁신에 관한 콩팥의 비유이다. 드러커는 늘 “혁신을 위해서는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즉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런 결정은 ‘체계적 폐기(systematic abandonment)’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콩팥이 어떻게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

거하면서 몸의 균형을 이루어가는지 공부하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음료수를 마시고 땀을 흘리고 근육이 수축하는 등의 모든 대사과정의 결과인 대사산물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콩팥의 작은 기본단위인 네프론에 도달하게 된다. 일단 이곳에 도착하면 실타래처럼 생긴 혈관들을 지나가면서 서로 연결해 있는 혈관세포와 콩팥의 세포들이 몸 안의 노폐물들을 분류하기 시작한다. 특히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과 같은 질소 화합물들과 약물의 대사물질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배설하여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한다. 만일 콩팥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대사산물(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된다.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체계적 폐기’가 일어나고 있다. 콩팥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은 부지런히 물을 재흡수하여 소변의 양을 줄인다. 우리 몸의 전해질(간략히 말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로 혈액 속에서 전리하여 생리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 균형에 문제가 생기면 콩팥에 도달하는 이들 전해질의 배설과 흡수를 조절하여 균형을 맞춘다. 버릴 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버려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콩팥의 ‘체계적 폐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다.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스스로 버릴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응급수단으로 ‘혈액



투석'을 해야 한다.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힘을 사용하여 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스스로 버리지 못해서 생긴 혈액 속의 찌꺼기를 혈액투석장치가 대신해 주어야만 살 수 있다. 살기 위해 어떻게든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콩팥은 우리 몸에 두 개가 있다. 대개 두 개씩 있는 장기들은 한 개가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한 개의 콩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도 나머지만 한 개의 콩팥이 거의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 몸에서 콩팥이 수행해야 할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콩팥(신장) 이식이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버려줄 수 있는 하나의 콩팥이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몸속으로 들어가 본래 자신의 체계적 폐기의 역할을 맡없이 수행한다. 하나의 장기가 한 사람을 살린다. 다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 그 사람 전부를 살려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저 버려 주기만 하는데도.

어떻게든 모으고 소유하려고만 하면, 그것이 음식이든 금전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 일종의 대사증후군이 생긴다. 피에 노폐물이 넘쳐 콩팥에 도달하는 찌꺼기가 많아진다. 버려지는 것보다 쌓이는 것이 많을 때, 우리 몸은 질병의 그림자에 가까워진다. 잘 버려야 한다. 그래야 산다.

피터 드러커는 콩팥의 체계적인 폐기의 기능을 혁신과 연결하였다. 한자어 혁신(革新)에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 새롭게 만들어내는 가죽이라는 뜻이 있다. 새롭게 되기 위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 몸의 콩팥이 늘 바르게 버려주고 있어 감사하다. 체계적으로 버려 주는 콩팥 덕분에 드러커도 지적인 기쁨을 느껴 보았으리라고 생각하니, 콩팥은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것 같다. 